

K-조선, 1.4조 투입해 AI 대전환… 제조혁신 닷 올렸다

정부·조선업계 2030년까지 투자 대형 조선소 기술 중소 협력사 확산 목표·영암 5960억 들어 공정 혁신 거제·부산 5000억 투입해 자동화 군산 3100억 들어 지역 조선업 재건

글로벌 경쟁 심화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직면한 국내 조선업이 제조 공정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M.AX)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선다. 정부와 지자체, 대형 조선소와 중소 협력사가 손잡고 오는 2030년까지 1조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상생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서 K-조선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는 12일 오후 전남 목포 호텔현대바이라한에서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협력 체계를 조선 제조 공정 전반으로 확대·개편한 '조선 M.AX 얼라이언스'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조선소들은 드론 기반 공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오후 호텔 현대바이라한 목포에서 열린 '조선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산업부

정 모니터링 등 일부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을 시도해왔으나, 수많은 중소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들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에 머물러 있어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상당했다. 이에 양 부처는 지역 산업과 앵커기업, 협력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AX 효과가 큰 타겟 공

을 설정해 5년간 집중 지원에 나선다.

우선 목포·영암권에서는 총 596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가 추진된다. 앵커기업인 HD현대삼호화물 생산 공정에 적용될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자율 물류 및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지능형 야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선 HD현대삼호와

대아산업 등이 영암군 대불자유무역지역 내에 4000억 원을 투자해 'AI 조선소 등 대공장'을 구축하고 성과를 지역 조선기업과 공유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앵커기업의 R&D에 1600억 원을 지원하고, 협력사들의 현장 설비 보급에 360억 원을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거제·부산권은 5000억 원을 투입해 기자재 기업 중심의 외장 공정 혁신을 추진한다.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거제 지역 앵커기업이 도면 설계 체계를 AI로 전환하고, 설계 및 생산 정보를 기자재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을 도입한다. 전국 기자재사의 약 60%가 밀집한 부산 지역에서는 배관·배전·철의장 분야의 중소 기자재사들이 자동화 로봇과 AX 장비를 적극 도입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총 1000억 원 규모의 기반 구축을 지원한다.

군산권은 과거 신조 중단으로 쇠퇴했던 지역 조선 생태계를 재건하기 위해 총 31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단행한다. 군산 조선소를 인수한 제이오션중공업이 소

립 공정 AX 실증 설비를 위한 공장 증설과 5G 특화망 인프라 부지를 제공하며, 검증된 기술은 인근 중소 협력사로 이전된다. 정부는 소조립 공정 기술 개발과 5G 특화망 구축 등에 1100억 원을 투입해 부활의 발판을 다진다.

이날 산업부와 해수부는 2035년까지 I MO Level 4 완전자율운항선박 운항 개시와 글로벌 시장 수주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26~35)'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라 핵심기술 개발 등 5대 전력을 이행해 2035년 약 2245억 달러로 전망되는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그간 노동력에 의존해온 조선업의 M.AX는 그 어느 산업보다 쉽지 않은 도전과제"라며 "조선 M.AX 3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해 중소조선·기자재사에 있어 성공 사례를 만들고, 이를 조선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하겠다

"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코트라, 해외직원 안전망 곳곳에 구멍

중동전쟁 여파로 피해 9건 발생
보안·후송 서비스 일부 지역 한정
외교부와 의료 지원 격차도 심각

중동전쟁 등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근무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파견 직원들의 신변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소속 기관에 따라 해외 근무자의 안전과 의료 지원 수준이 천차만별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이 코트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외무역관 파견직원 피해 건수는 총 9건으로 최근 10년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7건이 중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발발 당시 두바이에서는 직원 거주 인근에 요격 드론 파편이 낙하했고, 텔아비브 등지에서는 미사일 경보로 방공호 대피가 이어졌다. 텔아비브 쿠웨이트·안만·두바이 등 4곳에서는 직원 동반가족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 지난 9월에도 쿠웨이트 거주지 인근에서 드론 공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을 지킬 제도적 안전망은 턱없이 부족하다. 코트라의 보안·후송 서비스(SOS)는 원칙적으로 136개 무역관 중 위험지역 47곳에만 적용된다. 전 지역으로의 일시 확대는 민간 수행업체의 제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특수지 직원까지 전 지역에 적용하는 데 드는 예

산은 약 1억 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오히려 감액된 금액만 반영됐다. 반면 외교부와 KOICA는 지역 구분 없이 전 재외공관 근무자와 동반가족에게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관 간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의료 안전망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외교부는 지난 2021년부터 강북삼성병원을 통해 모든 재외공관 직원과 가족에게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코트라는 관련 예산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 여건이나 동남아·중남미의 맹기열 위험, 중동의 언어 장벽 속에서 직원과 가족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시급한 예산 반영이 누락된 것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BPA, 북극항로 이용 3대 원칙 제시

‘2026 북극서를 총회’서 발표

송상근 부산항만공사(BPA) 사장이 북극항로 이용은 친환경·상호신뢰 등 국제협력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12일 공사에 따르면 송 사장은 지난 8~10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열린 '2026 북극서를 총회'(Arctic Circle Assembly 2026)에 참석해 '책임 있는 북극 이용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 총회는 2013년부터 매년 10월 레이카비크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북극 국제회의다. 올해 회의에는 각국 정부·국제기구·학계·산업계·원주민 대표 등 70여개국에서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사장은 북극경제이사회(AEC) 주관 세션에 연사로 초청돼 '책임 있는 극지 연결을 위한 국제 항만의 역할'을 주제로 연설했다. 그는 공급망 위기 속에서 북극항



송상근(오른쪽)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아이슬란드 레이카비크에서 '북극서를'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BPA

로 검토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대한 검토는 ▲환경적 책임 ▲안전 ▲신뢰와 연대에 기반한 국제협력이라는 3가지 원칙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이 해양수산부 재직 시절 북극 정책을 다루며 얻은 교훈이라며, 국제 항만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란 견해를 피력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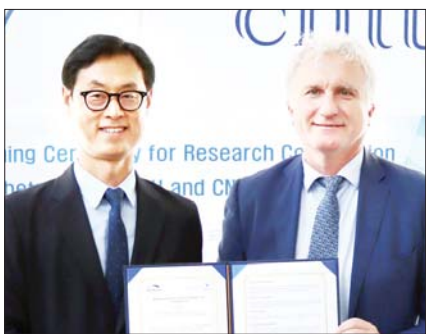
한자연, 이탈리아와 손잡고 미래차 통신기술 개발 박차

이탈리아 무선통신연구소와 업무협약
6G·차량통신 기반 커넥티드카 연구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이탈리아 무선통신국립연구소(CNIT-WiLab, 이하 WiLab)와 첨단 무선통신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에 본격 나선다.

12일 한자연에 따르면, 진종욱 한자연 원장과 안드레아 콘티 WiLab 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WiLab에서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맺은 WiLab은 1995년 이탈리아 국립대학 간 설립된 비영리 대학 컨소시엄(CNIT) 소속의 무선통신 전문 연구소다. 무선통신의 이론·실증 연구와 산학협력 R&D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론·산업응용·실증 역량을 바탕으로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볼로냐에 위치한 무선통신국립연구소(CNIT-WiLab)에서 체결한 MOU 서명식에서 (좌측부터 차례대로)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안드레아 콘티 무선통신국립연구소 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자연

6G, 차량통신, IoT, 대규모 무선망을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핵심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분야의 공동연구와 기술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첨단 무선통신 기반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기술 협력 ▲커넥티드카 및 모빌리티 응용을 위한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공동연구 및 교류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6G, 차량통신, IoT, 대규모 무선망 등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연구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국제공동 R&D 과제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한자연 원장은 "6G, 차량통신, IoT 등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은 미래 모빌리티의 연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라며 "무선통신 분야의 전문 연구 역량을 보유한 WiLab과의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및 커넥티드카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공동과제를 적극 발굴해 한-이탈리아 간 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국산 콩 자립형 단지 조성에 속도

농진청, 전국 11곳 특화단지 조성 추진

농촌진흥청이 국산 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 파주에는 두부공장이 들어섰다. 지역 자립형 생산·가공·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행보다.

12일 농진청에 따르면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사업은 '지역 자립형' 특화단지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농업인 주도로 ▲원료곡의 안정적 생산 ▲수확 후 종합 처리 ▲가공제품 개발 ▲유통 및 소비 확대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선품', '대단', '청자5호' 등 신품종 보급과 재배 전(全)과정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 수확 후 선별·저장·가공 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부가가치 콩 가공 상품 및 상표 개

발을 뒷받침해 생산-가공-유통-소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역 자립형 모형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대상지 11곳 가운데 충남 당진·전남 함평, 충북 괴산·경남 사천 등 4곳에서는 체계 구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 경기 파주와 경북 영주·충북 충주·충남 공주·전북 김제·전북 익산·경북 울진 등 7곳은 진행 중이다.

파주시에서는 이날 12일 '해스밀레' 두부공장이 개소했다. 그간 추진해 온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완성된 것.

이두부공장은 농촌진흥청과 파주시가 지난 2년간 사업비 20억 원(국비 50%)을 투입하고, 생산자 단체와 가공 법인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이룬 공동의 성과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경 농진청 차장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세종=김연세 기자